

지역 소식통

벼 병해충 긴급 방제 지원

정읍시가 장마 이후 벼 병해충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벼 병해충 긴급 방제에 발 벗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등 벼 병해 발생이 확산되고 있다.

긴급 방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삭도열병으로 이어져 벼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벼 병해충 확산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3억9,000만원을 확보해 병해충 긴급 방제를 지원한다.

정읍시 전체 벼 재배 농가에 벼 병해충 긴급 방제를 위한 약제를 지원해 신속한 방제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병해충 관리를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과수 피해 돌발해충 방제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과수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돌발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농기술센터에 따르면 과수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은 5월 중·하순에 부화해 7~8월에 성충이 돼 8월 하순부터 9월 까지 알을 낳고 죽게 된다.

약충은 줄기에 붙어 수액을 흡즙하고, 흰색 밀납물질을 분비하여 그늘을 형성하며, 성충은 1년생 어린 가지 속에 알을 낳아 나무의 생장을 방해하고, 열매가 달릴 가지가 손상되면서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현재 시 돌발해충은 산림 인접 지역 중심으로 발생면적이 97ha에 이르며, 농경지로 확산되고 있어 빠르고 적극적인 방제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농기술센터는 산란기에는 사과, 배, 복숭아 등 7개 작목 284ha 과수농가에 공동방제 약제를 공급했다.

특히, 전년도에 돌발해충 발생이 많았던 산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입암면, 웅동면, 칠보면 등 6개 읍면동 41ha에 끈끈이 트랩을 지원해 산란기를 앞둔 성충을 포획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체험형 자연휴양림 조성 본격화

정읍시가 자연휴양림 지정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대규모 자연휴양림 조성에 나선다.

시는 지난 21일 용산동 산50번지 일원 면적 36ha가 산림청으로부터 '내장산 자연휴양림'으로 최종지정·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국비 82억 포함 총 183억원을 투입해 산림 레포츠 시설과 산림휴양 시설 위주의 체험형 자연휴양림을 도시 근교에 조성할 계획이다.

자연휴양림 지정은 숲의 보호와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용산동 산50번지 일원 내장산 자연휴양림 최종 지정·승인

2023년까지 183억원 투입 산림 레포츠 시설 등 위주로

숲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잘 가꾸어 그사이 공간에 사람들이 잠시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산림보호 육성과 환경과괴 없는 휴식 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접근해 숲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휴양림으로 손꼽힐 전망이다.

한편, 시는 전체 임야가 시 면적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내장산국립공원이라는 훌륭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 명산인 내장산 인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특히, 용산호 주변에 수변 생태공원

과 음악분수 등 위락시설과 휴식 시설을 조성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지 인근 내장산리조트 내에는 JR연수원과 대일골프&리조트 호텔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자연휴양림 내 도입시설인 알파인 코스터, 포레스트 슬라이드, 넷 어드벤처 등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이 설치되면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돼 정읍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변 개발 여건과 연계할 수 있

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의 체류시간 연장, 소비증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최근 산림육과 산림레포츠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휴양림 조성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산림 생태를 보전하면서 휴양과 레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산림문화 공간을 조성해 시민 휴양은 물론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멋진 장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폭염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폭염대응 도로 살수차(왼쪽)와 관내 버스정류장에 비치된 얼음(오른쪽).



“덥다 더워”... 고창군, 폭염종합대책 추진

내달 30일까지 TF팀 구성 시민 인명·재산피해 예방에 총력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가능 양산쓰기운동 전개  
야외 무더위 쉼터 별도 운영·온열질환자 집중 모니터링 실시

고창군이 장마 이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종합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분야별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해 폭염대책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폭염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은 격한 체온상승을 방지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할 수 있는 '양산쓰기운동'을 전개한다. 또 생수를 구입해 이달 중으로 취약계층에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로당 등 실내 무더위쉼터 운영이 중단되면

서 마을 정자 등 야외 무더위쉼터를 별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보건소에서는 응급구급 체계를 운영하고, 온열질환자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해 폭염대비 예방활동과 농·축·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올해는 코로나19와 폭우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지만, 폭염에 철저하게 대비해 군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폭염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부안군, 해수욕장 폐장 후 안전·방역관리 집중

부안군은 관내 주요 해수욕장이 지난 17일 폐장했지만 지속되는 무더위로 이용객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용객들의 안전과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안전관리요원 26명과 방역요원 9명을 오는 31일까지 연장근무 조치하고 구명보트 등 필수장비 역시 철수하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두고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개장기간 중 1건의 안전사고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폐장 후에도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해수욕장내 안전사고와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역 청년중심 청년정책’ 실현

부안군, 청년정책위 출범식... 다양한 의견 정책에 반영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년중심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는 부안군 청년지원 조례를 근거로 출범했으며 조례는 부안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능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박현규 부안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안군의원과 각 분야 관련 전문가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 등 15명으로 구성했으며 당연직을 제외한 12명은 청년으로 구성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2년 동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

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청년과 함께 청년정책의 새로운 협치와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청년친화도시 부안의 밑거름을 그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청년활동 및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으며 이에 따라 부안청년센터가 설립돼 청년중심 활동 플랫폼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주관 하반기 지역 활성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전북연수원 청년정책 컨설팅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설계·추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축사시설 화재대비 무료 전기안전점검 서비스

고창군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고창군 전기공사협회와 공동으로 축사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실제 여름철 덥고 습한 축사환경에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배선 불량과 누전 차단기의 손상과 성능 저하가 보고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행정·축산관련단체, 고창군 전기공사협회가 모여 대상농가 선정과 점검 추진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25일부터 1개월간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비용은 심비원기인 1호당 5만원의 가격으로 고창군 전기공사협회의 재능기부로 점검을 한다.

고창군은 화재예방에 대한 농가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재산 보호,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의 노후 전기시설 등에 대해 전기 안전점검을 내년 500호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고창군청 정병진 축산정책팀장은 "전기안전점검 서비스를 통해 화재 예방과 농가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